

“

202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수기공모전 당선작



[우수작]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친환경농산물과의 첫만남”

오랜시간 기다려온 우리 부부에게 선물같이 찾아와 준 아기. 맛벌이로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찾아왔다. 임신부를 위한 지원을 찾아보던 중 알게된 임신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하지만 2021년 신청기한이 이미 마감되어 출산 후 2022년에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이전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일반농산물보다 가격대도 높아 직접 구매한 적이 없다. 이번에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접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기대 이상으로 품질이 좋았다. 무농약이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야채·과일 등의 세척이 쉽다. 정성스럽고 매우 깨끗하게 포장된 농산물, 상품마다 책임자의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어 아기의 탄생을 축하받고 배려받는 기분까지 들었다.



보냉상자 및 표고버섯, 참외, 블루베리, 양파



유기농 대추방울토마토



무농약 블루베리



무농약 흰느타리버섯

“친환경농산물이란 무엇일까, 유기농과 무농약의 차이”

사실 임신 당시 아기를 위해 합성첨가물이나 화학부형제가 없는 영양제를 섭취했으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은 부족했다. 유기농은 뭐고 무농약은 뭘까?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살펴보았다. ‘유기농’ 표기는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농산물(농약X, 화학비료X)로 만든 식품으로 인공첨가제나 방부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병원균관리, 세척 및 소독 등 8가지 인증기준을 준수한 식품. ‘무농약’ 표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하로 사용한 농산물. 또한 ‘무항생제’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유기축산물(유기사료를 먹이며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정보는 처음 접하게 되었다. 무농약·유기농에 대한 기준을 알게되니, 친환경농산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아기에게 좋은 이유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요알못 엄마의 친환경농산물 이유식 만들기”

엄마가 되고나니, 요알못 엄마도 좋은 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 ‘아기 이유식은 직접 만들자’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다행히도 이유식은 별도의 첨가물 없이 재료를 씻어 찌거나 데치거나 끓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라, 신선하고 영양 풍부한 재료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단호박·고구마·감자를 찌서 으깨기, 취나물·시금치 등의 나물을 씻어 데친 후 다지기, 닭육수 내기, 사과·배 등의 과일 갈기 등. 처음에 아기는 믹서기 소리에 매우 놀라 기겁을 하며 울어댔고, 그 때문에 직접 칼질하고 체에 걸러 이유식 만드는데 오전 시간을 다 소요했다. 아기가 놀고 있는 곳에 노래를 크게 틀어두고 방에 들어가 빠르게 믹서를 돌리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든 이유식을 아기가 맛있게 잘 먹어주니 무척 뿌듯했다. 식재료 주문은 주 1회 가능하게 되어있어 포인트를 사용해 소량씩 자주 주문을 했더니 배달음식을 즐겼던 우리 부부의 식습관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식재료가 있으니 배달보다 직접 조리해서 먹는 횟수가 증가했다. 포인트 사용을 위해서는 20%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충동구매나 과소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좋았다.

“사업효과: 아기와 부모의 건강, 농업생태계 활성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긍정적 의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가계에 재정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아기와 우리 부부의 식습관 개선에도 좋은 계기가 되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투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좋은 농산물들을 더 많이 애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이러한 의식을 심어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정말 훌륭한 사업이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임산부에게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다. 하나의 사업으로 아기와 부모의 건강, 농업생태계의 활성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 준 일석삼조의 효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최근 꿀벌실종 사건으로 이슈가 되면서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다. 농약은 토양과 식물 등에 축적되고 그것에 오래 노출되면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약에 오래 노출된 꿀벌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친환경농업은 토양을 통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여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며, 지속적인 먹거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다. 우리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미래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환경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